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긴다면 일체가 무너진다

☞ 19면에서 계속

내 마음 그 자체도 천차만별로 하는 사이 없이 나갑니다. 고정됨이 없어서 하는 사이 없이 하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오고, 보는 사이 없이 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했다' 하는 생각도, '내가 안 했다' 하는 생각도 그냥 묵묵히 놓고 가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 몸뚱이, 생명의 집합소가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속에 그 생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 주인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주인을 바로 부처라고도 하고 자기 주인공이라고도 합니다. 타의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자의에, 나로부터 세상은 있는 겁니다. 사대 성인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라. 너를 알아야 하나로 돌아가는 이 우주의 섭류도 다 알 수 있느니라. 너를 모른다면 어떻게 남을 알 수 있으며 우주의 섭류를 알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마음이 묘하고 광대한 것을 여러분은 모르고 착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신도님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좋다. 일거수일투족 들어오고 나가는 거, 내고 들이는 거, 그것을 하는 놈이 누구냐. 네가 하지 않느냐. 바로 네가 한다면 네가 어떤 거 할 때 너라고 할 수 없으니 바로 주인공이다. 그러니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긴다면 일체가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불가에서는 오신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심안으로 보는 거, 마음의 귀로 듣는 거,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거, 남의 마음을 아는 사이 없이 아는 거,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거, 그래서 숙명통, 천이통, 천안통, 신족통, 타심통이 다섯 가지를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시쳇말로 다섯 가지가 갖추어진 컴퓨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가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가는 그 자체가 입력이 되어서 입력된 것이 현실로 나오는 겁니다. 어저께도 과거고 일 초 전도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있는 것이 현실에 모두 나오니까 말입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그대로 현실로 나오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에다 놔라" 하는 것은 뭐냐. 그 입력된 것이 나오는 자리에다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만이 과거의 모든 유전성 업보성, 그 다섯 가지가 없어질 수 있고 또한 거기는 팔자 운명도 붙지 않는 자리다 이겁니다. 바로 입력된 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든 상식으로 하든 지식으로 하든 어떠한 걸로 해도 그거는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다가 다시 입력을 해야만이 그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아니라면, 타의에서 구해서는 자기가 깨달을 수 없느니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죠. 여섯 가지 대신 못해 주는 게 있습니다. 밥 먹는 거, 똥 누는 거, 자는 거, 아픈 거, 죽는 거, 깨닫는 거 이 여섯 가지를 누구도 대신 못 해 줍니다. 대신 못 해 주는 이 자체가 바로 '인생은 홀로 와서 홀로 간다. 그런데 가는 곳이 있느냐? 바로, 가는 곳도 그 자리요, 오는 것도 그 자리요, 사는 것도 그 자리다.' 이 말입니다.

> 인생은 홀로 와서 홀로 간다.
> 그런데 가는 곳이 있느냐?
> 바로 가는 곳도 그 자리요, 오는 것도 그 자리요,
> 사는 것도 그 자리입니다.

만약에 과거가 있다고, 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 초 전에 과거였는데 현실로 오느라고 과거라고 했습니다. 현실로 오기 위한 방편에 의해서 과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인해서 현재로 오려면 그 사이가 미래죠.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란 얘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도 공했느니라." 하셨습니다.

공했다는 그 말을,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란 말을 아까 얘기해 드렸죠.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 있느니라. 이 줄이 말입니다, 전력을 가져오려면 이쪽 줄과 저쪽 줄이 한데 합쳐져야 하고 그래서 불이 들어올 뿐입니다. 어느 누가 "스님, 참 이런 공부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너의 줄과 내 줄이 한데 합쳐져서 불이 들어올 뿐이지 네가 한 것도 내가 한 것도 바로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 지금 과학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터지지 않는 이상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과학을 연구 못 할 겁니다. 무의 세계, 정신세계 50%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학계도 그렇습니다. 50%를 모른다면 그 반만 가지고는 사람을 100%로 건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 살고 있는 것도 99%지 100%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죽는 것도 건지는 거요 살리는 것도 건지는 겁니다. 헐었던 옷을 벗어 버리게 하고 진화해서 다시 새 옷을 입게 되니까 그것도 건지는 겁니다. 건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도 모습도 가져올 수 있고, 어느 집에 어떻게 인연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자기 인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미지를 끝까지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세세생생에 주어진다고 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세생생 주어지는 것이니까, 세세생생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헤매고 돌게 될는지 어떨지는 자기의 소관입니다, 모두.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할 문제는, 소년소녀 가장 돕기라고 하지마는 이 외에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한생각의 보시가 있습니다. 이 한생각의 보시라는 것은 자기 몸같이 생각하고 자기 아픔같이 생각하고, 자기 부모같이 생각하고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현재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고 현재의 자식만 자식이 아닙니다. 수억겁을 거치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어느 때의 내가 인생으로 출현됐을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내 부모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을 봐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스스로 생겨야 되는 거죠? 억지로는 못하죠. 내 우물 안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다를 보시란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머니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은 광대하고 무변하고 묘하니까 네 마음이 그 공기 주머니를 뛰어넘어라, 그러면 자유권을 얻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지금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의 집이 되죠? 이 집이 무너지면 안 되죠? 이 집은 안의 생명들을 보호하고, 안의 생명들은 작용을 해서 이 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 씀씀이대로 바로 속에 통신이 돼서, 대뇌로 통신이 돼서 소뇌를 거쳐서 중뇌로, 중뇌에서 책정을 내려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사대로 통신이 되면 거기에서 공장마다 바로 부족한 거를 메꾸면서 다 이렇게 튼튼하게 이끌어 갑니다. 이 대뇌로 통신이 안 되면 책정을 내릴 수가 없어서 몸속에서 작용들을 못 하죠. (이마를 짚어 보이시며) 여기가 명령서인데요, 그러니까 의학도 심성 의학이 돼야 하고 문화 문명을 잘 이끌어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심성이 트여야 된단 얘깁니다.

마음은 창살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몸은 놔두고 지금 댁들의 집을 다녀와 보세요. 멀든지 가깝든지 말입니다. 자기 회사를 갔다 오려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채 갔다 오실 수 있어요. 어디에 뭐가 놓이고 어디에 뭐가 놓인 것까지도 다 알고 있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 통 안에서, 즉 육통 안에서 벗어난다면 누진에서 자유권을 얻어서 마음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육통에서 벗어나야 바로 이 속에 있는 천차만별의 의식들을 보살로, 천백억화신으로 화하게 해서 응신으로서 나투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시쳇말로 한다면 '분자로 화해서 입자로 모두가 나툰다' 이 소리와 똑같은 얘깁니다. 그래서 입자로 나투어서 그 입자가 또 원자가 되고 이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길게는 얘기 못 하겠어서 짧게나마 그냥 건둥건둥 해 나가는 겁니다.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몸속에서 움죽거리는 것과 우주의 섭류와 인간살이의 섭류가 다, 천지인이 움죽거리는 것도 모두가 일치합니다. 불법승이라고 하는 그 자리도 바로, 내가 생각이 없을 때는 부처요 생각을 냈을 때는 법신이요 움죽거렸을 때는 화신, 보현신이란 얘깁니다. 부처님의 마음 하나가 그렇게 광대해요. 부처님의 마음 하나가 깨달은 마음 하나라면 바로 부처님의 마음으로써 이름이 지어진 아촉이 있고 아미타가 있고 미륵이 있고, 또는 칠성부처가 있고 지장이 있고 관세음보살이 있고 용신이 있고 지신이 있고, 매사에 아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이름해서 보살이라고 했지마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지금 현실에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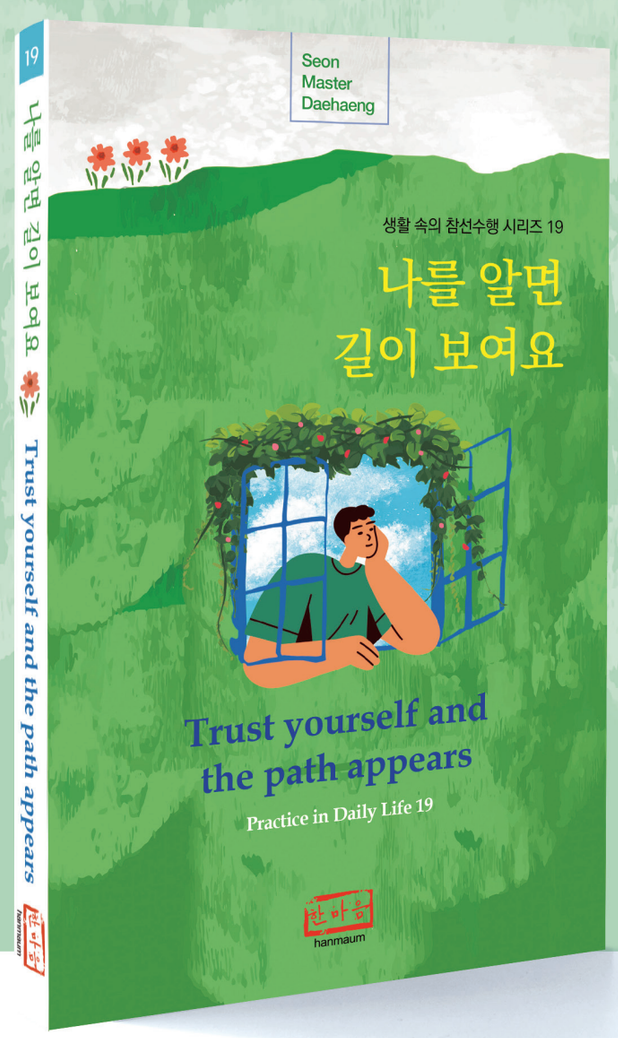
우리 자체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남을 알며 남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 하나가 그렇게 귀중합니다. 마음 하나를 이렇게 생각하느냐 저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주어집니다. 자기 위치가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위치도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의 주인공은 다 똑같습니다. 생명의 근본,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을 켜면 거기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가설만 됐다면. 그래 자식과 부모, 형제가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가설입니다, 무의 가설. 이 모두가 그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 지구라는 도량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도량이라 하면 우주 법계, 과거 현재 미래, 삼라만상을 다 한꺼번에 한도량이라고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6년 1월 21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